

## SK케미칼, 연말 대대적 봉사활동 전개

SK케미칼이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SK케미칼은 12월1일 무의탁 노인들이 모여 있는 인천 삼산동 지역에 김장 6000포기를 전달했고, 수원중앙연구소 정문에 비치된 돼지저금통을 열어 연로한 소외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했으며, 울산 노인의 집에서 목욕 봉사도 실시했다.



이밖에 중국 청해성 해남주 공화현의 세르첸 티베트 영어중학교에 PC 60대를 기증하고, 캄보디아 정글지역에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

SK케미칼이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7가지로 저금통 모금으로 연탄 보내기 운동, 울산공장 과장단과 선녀회 목욕봉사, 우진학교 나들이 봉사(장애인 학생 야외활동 지원), SK 심기신수련 봉사(체조 및 마사지 봉사), 인천사랑의 김장봉사(삼산동 주민 6000포기 김장 담그기), 중국 소수민족학교 PC보내기(영어학교에 PC 60대 기증), 보디아 의료봉사 지원(치료용 의약품 지원) 등이 있다.

12월1일에는 무의탁 가족과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인천 삼산동 주민을 위해 SK케미칼 봉사단 50여명이 봉사활동을 벌였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 자원봉사원과 함께 김장김치 6000포기를 담가 생계가 어려워 김장이 곤란하거나 무의탁 노인이 기거하는 1000여세대에 배달했다.

<화학저널 2005/12/05>